

역전 KO승

〈고진영〉



고진영이 14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C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며 축하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진영, LPGA 파운더스컵 4타 차 뒤집고 우승 통산 15승 이인지에 역전승 ... 영암 출신 유해란, 뒷심 부족 4위 그쳐

한국 여자골프의 간판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정상에 오르며 통산 15승째를 수확했다.

세계랭킹 3위인 고진영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파72-653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적어낸 고진영은 이인지(호주)와 동타를 이룬 뒤 1차 연장전에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45만 달러(약 6억원)다.

고진영은 올해 3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이후 약 두 달 만에 승수를 추가, LPGA 투어에서 시즌 두 번째이자 통산 15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시즌 LPGA 투어 9개 대회를 치른 가운데 고진영은 한국 선수 중 유일한 우승자로 자존심을 지켰다.

특히 고진영은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파운더스컵에서만 세 번째 우승을 거뒀다.

이 대회에선 2015년 김효주, 2016년 김세영, 2018년 박인비가 우승했고, 2019년과 2021년, 그리고 올해 고진영이 정상에 올라 한국 선수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3라운드까지 선두 이인지에게 4타 뒤진 공동 4위였던 고진영은 최종 라운드 전반 이인지가 주춤한 사이 추격전에 나섰다.

이인지의 6번 홀(파3) 티샷을 물에 빠뜨린 여파로 더블 보기를 적어낸 뒤 4번 홀(파4) 버디로 만회했으나 전반엔 한 타를 잃었다.

이인지의 두 조 앞에서 경기한 고진영은 3~4번 연속 버디와 7번 홀(파4) 버디로 공동 선두에 올라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였다.

고진영이 12번 홀(파5)에서 투온 투퍼트 버디로 먼저 치고 나갔으나 이인지는 11번 홀(파4)에서 까다로운 버디퍼트를 떨어뜨려 다시 균형을 맞췄고 12번 홀 버디로 단독 선두를 되찾았다.

이어 이인지는 15번 홀(파3)에서 완벽한 티샷

으로 버디 기회를 만든 뒤 놓치지 않고 고진영과의 격차를 두 타로 벌렸다.

하지만 고진영의 뒷심은 꺾이지 않았다.

17번 홀(파3) 티샷을 그린 주변 벙커에 빠뜨린 뒤 날카로운 벙커샷으로 홀을 직접 노렸으나 스킵고 지나가 아쉬움을 삼킨 고진영은 이인지의 16번 홀(파4) 보기로 한 타 차로 뒤쫓았다.

이어 고진영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어려운 내리막 증거리 퍼트를 넣으며 동타로 먼저 경기를 마쳤고, 이후 이인지가 타수를 줄이지 못하며 연장전이 성사됐다.

기세가 오른 고진영은 18번 홀에서 이어진 첫 번째 연장전에서 승부를 갈랐다.

고진영이 이인지보다 훨씬 먼 버디 퍼트를 남겨줬으나 홀 가까이 붙여 파를 지켜냈고, 이인지는 버디 퍼트를 흘려보낸 뒤 파 퍼트마저 놓치며 대회 2연패 문턱에서 돌아섰다.

3라운드 공동 2위였던 신인 유해란은 이날 한 타를 잃었으나 4위(8언더파 280타)로 시즌 최고 성적을 남겼다.

영암 출신 유해란은 LPGA 투어 정식 데뷔전인 3월 드라이브는 챔피언십 공동 7위, 지난달 말 LA 챔피언십 공동 6위에 이어 시즌 세 번째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김시우, PGA 바이런 벨슨 1타 차 준우승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벨슨(총상금 950만 달러)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시우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기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1)에서 열린 PGA 투어 최종 라운드에서 8언더파 63타를 몰아쳤다. 보기 하나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낸 김시우는 제이슨 데이(호주)에게 1타가 뒤져 공동 2위(22언더파 262타)에 올랐다.

PGA 투어 통산 4승을 올린 김시우는 준우승도 이번이 네 번째다.

시즌 톱10 진입도 네 번째로 늘었다.

김시우는 84만55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공동선두 3명에 2타 뒤진 공동 4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시우는 초반부터 버디 사냥에 나서면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선두와 2타 이내 10여명이 물리는 치열한 각

축전 속에서 김시우는 16번 홀(파4) 1m 버디로 데이에 1타 차로 따라붙었다.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뽑아내며 공동선두에 올랐지만, 데이가 곧바로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지는 못했다.

김시우가 역전 우승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 대회 한국 선수 4년 연속 우승도 무산됐다.

이날 9언더파 62타를 몰아친 데이는 5년 만에 PGA 투어 정상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강성훈과 안병훈이 공동 14위(17언더파 267타)에 올랐다.

2021년과 작년엔 2연패를 달성했던 이경훈은 공동 50위(11언더파 273타)에 그쳤다.

공동선두로 출발했던 오스틴 에크로트(미국)가 6타를 줄인 끝에 김시우와 함께 공동 2위가 됐고, 세계랭킹 2위 스킵티 세플라(미국)는 공동 5위(20언더파 264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김시우

삼성 원정·키움과 홈경기 '6연전' 투이의리·타 김선빈의 역할 중요

T 타이거즈 전망대

위기의 '호랑이 군단', 변화가 필요하다.

KIA 타이거즈에게는 악몽의 한 주였다. 시작은 좋았다. 양현종과 김광현이 맞붙은 '빅매치'에서 1위 SSG 랜더스를 상대로 3-0 승리를 가져왔다.

4경기 연속 비로 쉬어가느라 경기력 우려가 있었지만 중요한 승리를 낚아채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SSG전 결과는 루징 시리즈였다. SSG가 황당한 주루사 등을 연발하면서 빈틈을 노출했지만 KIA의 전략이 아쉬웠다. 결국 두 경기 연속 2점차 패배로 끝이 났다.

두산 잠실전도 아찔했다. 찬스에서 침묵하는 방망이와 수비 실수로 자멸했다. 집중력, 수비 싸움에서 완패하면서 KIA는 5연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KIA는 16일 대구로 가서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 3연전을 벌인 뒤 안방으로 돌아와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초반 흐름이 좋지 않은 팀들과의 대결. 5연패를 하면서 KIA는 7위까지 내려왔다. 삼성은 승차 없는 6위, 키움은 반 경기차 8위다.

앞서 두 팀과의 맞대결은 '스윙'이었다. 삼성에는 시즌 첫 스윙승을 이뤘고, 키움에는 첫 스윙패를 기록했다.

해줘야 할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KIA는 16일 손 앤더슨을 선발로 내세워 한 주를 연다. 앤더슨은 지난 10일 SSG전에서 3.1이닝 4실점(3자책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4월 29일 등판 이후 비로 오랜 시간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면서 감을 잃은 모습이었다.

앞선 등판 결과는 아쉬웠지만 꾸준히 마운드를 지켜왔던 만큼 정상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앤더슨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문제는 이의리다. 이의리는 올 시즌 7경기에 나와 31.1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난 12일 두산전에서 4회 투구수가 101개에 이르면서 4이닝 2실점으로 등판이 일찍 마무리됐다.

최근 세 경기에서 채 5회도 지키지 못하는 등 위력적인 구위에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과감한 승부를 주저하면서 구위의 감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타석에서는 김선빈에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김선빈은 지난 주 7개의 안타를 더하는 등 표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역할이 아쉬다. 올 시즌 김선빈의 득점권 타율은 0.21에 그치고 있다. 개막전에서 당한 발목 부상 여파로 수비와 주루에서도 매서움이 떨어지고 있다.

주축 선수들의 반전이 필요한 상황, 벤치의 움직임도 필요하다.



이의리

KIA는 SSG와의 대결에서 한 발이 부족해 연승을 잇는데 실패했다. 잠실 LG전에서 보여줬던 벤치의 과감한 움직임이 실종되면서 이길 수 있던 경기들을 SSG에 넘겨졌다.

시즌이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최상의 전략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유연하면서도 폭 넓은 선수 기용으로 전력과 경쟁을 극대화해야 한다.

'수비' 집중력도 중요하다. KIA는 지난 주 6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실수들까지 더해 스스로 무너진 모습이었다.

수비 실수에 울고 상대 호수비에도 울었다. SSG와의 승부에서는 김광민이 짐승 같은 수비로 KIA의 추격을 꺾었고, 잠실에서는 정수빈이 몸을 날리며 KIA의 안타와 점수들을 낚아챘다.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다져야 할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네덜란드 국대 수비수 티모 '패스 톱 4'

K리그1 4월 패킹 데이터

광주FC의 '네덜란드 국대표 수비수' 티모가 패스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5일 공개한 K리그1 4월 패킹(패스) 데이터 'TOP 5'에서 티모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패킹 지수는 패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패스가 동료에게 도달했을 때 그 패스로 제진 상대 선수의 수를 의미한다.

티모는 4월 6경기에서 369개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이 패스로 425명의 상대 선수를 제쳤다. 평균 패킹은 1.15.

1위는 울산현대의 김영권이 차지했다. 김영권이 4월 한달 6경기에 나서 성공한 패스 수는 총 379개. 이 패스로 제진 상대 팀 선수 숫자는 모두 665명이었다. 평균 패킹은 1.76을 기록했다.

2위는 307개의 패스 성공으로 패킹 491을 기록한 이용(수원FC)이다. 이어 그랜트(포항·패킹 473), 티모, 이규성(울산·패킹 391)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티모는 장거리 패스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티모는 30m 이상의 장거리 패스를 38차례 성공시키면서, 패킹 146을 기록했다. 평균 3.84. 장거리 패스 하나로 약 4명의 선수를 제치는 효과를 냈다.

장거리 패스 부문 1위도 김영권의 차지였다. 김영권은 43개의 패스로 177패킹, 평균 4.12를 장식했다.

한편 전남드래곤즈에서는 유해이가 K리그2 패



티모

킹 데이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해이는 216개의 패스로 379명을 제치면서 평균 1.76의 지수를 보였다. 유해이는 장거리 패스 부문에서도 3위(42패스·123패킹·평균 2.93)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